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Cross-Cultural Study on the Infant Rearing Practices in Young Mother-Grandmother Generations of Korea, Hong-Kong, and the United State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 안 진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Ha Yeoung, Mi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An Jin, Yoo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or similarities of infant rearing practices in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and in young mothers and grandmothers generations. The subjects were young mothers(YM) with babies from 2 to 2.5 years and their mothers or mothers-in-law(GM) in Korea(YM=118, GM=118), Hong Kong(YM=126, GM=78) and the United States(YM=105, GM=105). The subjects answered questionnaires on infant rearing practices that were constructed by child study specialists in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Statistical analyses were by frequencies, percentages, and χ^2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orresponding Author: Min Ha Yeoung,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Kumlak-1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Tel: 82-53-850-3545, Fax: 82-53-850-3520, E-mail:mhyecd@hanmail.net

* 이 논문은 2003년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정기 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를 확장한 것임.

1. Kum-Jul was used to announce giving birth to relatives and neighbors only in Korea. Mothers in Korea were more helped in their recovery by their mother or mother-in-law than their husband, but the opposite was the case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Most Korean mothers ate special foods after giving birth, but mother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didn't. Mothers in Korea were more likely to avoid contact with strangers for a given period of time than mother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The babies in Korea were more often named by grandparents than by parents, but most of the babie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were named by parents. The greater part of babies in Korea didn't have childhood names or nick names, but most babie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did.

2. Mothers in Korea were more likely to give a banquet, exercise Dol Jab le, share foods with neighbors, and take souvenir pictures on the baby's first birthday than mothers did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Most mothers in Korea tended to think that their baby's first birthday was more meaningful than the other birthdays, but most mother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didn't.

3. Some differences between young mothers and grandmothers generations in infant rearing practices were found in each culture.

주제어(Key Words): 한국, 홍콩, 미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infant rearing practices in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어머니-할머니 세대(young mother-grandmother generations), 비교문화 연구(cross-cultural study)

I. 문제제기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는 행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규명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행위적 측면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 아동양육을 연구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신념 또는 가치관이 양육행동 자체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강조(Goodnow, 1988; Miller, 1988)되면서 이를 규명하려는 연구(구미향, 이양희, 2002)가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 연구가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체계를 토대로 발전(이영환, 2002; Edward, Gandini, & Giovaninni, 1996; Greenfield & Suzuki, 1998; Hoffman, 1988; Super & Harkness, 1997)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양육에 관한 문화적 관습이나 풍속은 아동양육의 인지적 측

면을 지배하는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매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양육을 지배하는 양육 문화나 양육 풍속에 관한 연구(김영주, 2001; 신양재, 김영주, 1993)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전통사회의 양육 문화 연구(류점숙, 1994; 유안진, 1986, 1990; 이순형, 1997; 최기영, 이정미, 2002)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아동양육의 전통적 의미나 가치를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아동양육 풍습의 문화적 독특성과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양육에 관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신념이나 가치의 문화적 특성을 간접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이거나 아동양육 풍습의 비교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분리되어 몸밖으로 나오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의례적 행위인 출생의례와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인 아기행사(유안진, 1986)는 구체적인 양육행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영

아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양육풍습이라 할 수 있으며, 생의 가장 초기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전달받을 수 있는 문화적 관습이라 할 수 있다. 출생의례에는 출산 알림, 산후조리, 신생아 이름짓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기행사로써는 첫돌 잔치가 포함될 수 있다).

민하영과 유안진(2003)은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가 196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내용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풍속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독특성이나 문화간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신념이 반영된 우리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으로 부각시키는데 부족함을 보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홍콩과 미국의 양육 풍속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가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우리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일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홍콩과 미국을 비교문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최근 비교문화심리학에서 중국, 일본과 같은 동양권 국가를 유교문화에 근거한 대표적인 집합주의적 양육문화로, 미국과 같은 서구권 국가를 개인주의적 양육문화로 분류(Greenfield, 1994)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서양권의 양육가치 문화를, 홍콩은 우리나라와 함께 동양권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은 100년 동안의 영국 통치 과정에서 서양권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남수중, 1996), 동양적이면서도 서구화된 양육가치 문화를 양립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문화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미국과 홍콩과 비교해 보는 것은 동양권과 서양권 문화의 연속선 상에서 우리의 아동양육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문화간 비교 뿐 아니라 각 문화의 세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세대간 전승의 상대적 역동

성을 비교문화 집단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홍콩, 미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는 문화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한국, 홍콩, 미국의 출생의례는 문화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한국, 홍콩, 미국의 아기행사는 문화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 홍콩,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는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한국, 홍콩,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는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한국, 홍콩,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의 아기행사는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전통적인 우리나라 양육 풍속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문화적 특수성 및 보편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정보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아동양육에 관한 문화적 특성은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발달을 조성하는 문화적 의미체계의 지표로 기능하기 때문에(Super & Harkness, 1997), 아동양육에 대한 우리사회 내 부모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간접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세 또는 2세 반까지의 첫 자녀를 둔 한국, 홍콩, 미국의 어머니와 그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를 연구

1)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하영과 유안진(2003)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상으로 하였다. 최대 2세 반까지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된 것은 출산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최근 경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각각 118명, 미국은 각각 105명, 홍콩은 젊은 어머니 126명 그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 78명 등 총 65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보자 모집 표집(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등 비확률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연령과 학력 분포는 <표 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편 한국, 홍콩, 미국의 할머니 세대는 평균 1939년, 1935년, 1946년도에 출생하여, 평균 1960년, 1956년, 1966년도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평균 1962년, 1958년, 1968년도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어머니 세대는 평균 1967년, 1972년 그리고 1964년에 각각 태어났으며, 평균 1992년, 1993년, 그리고 1991년도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평균 1994년, 1994년, 그리고 1995년도에 각각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2. 측정도구

우리나라 양육 풍속의 문화적 독특성 또는 보편

성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비교문화의 준거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척도는 한국, 홍콩 그리고 미국 학자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양육 풍속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자료(김용덕, 1996; 김용숙, 1993; 유안진, 1986, 1990)를 근거로 출생의례를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분리되면서부터 첫똥 전까지 행해지는 의례'라 정의하고 ① 출산알림(4문항), ② 산후조리(3문항), ③ 신생아 이름짓기(2문항)를 하위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① 출산알림의 경우,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함, 금줄 치, ② 산후조리의 경우,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 산후조리 음식,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 기간, ③ 신생아 이름짓기의 경우, 작명과 아명 또는 애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아기행사를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라 정의하고 ① 첫똥행사(4문항), ② 첫똥선물(4문항), ③ 첫똥의미(1문항)를 하위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① 첫똥행사에는 똥찬치, 똥잡이, 똥음식 이웃돌림, 똥사진찍음 여부, ② 첫똥선물에는 돈이나 금붙이, 저금통장 등 금전적 선물, 장난감

<표 1> 한국, 홍콩, 미국의 문화내 세대간 연령분포

어머니세대연령	한국(%)	홍콩(%)	미국(%)	할머니세대연령	한국(%)	홍콩(%)	미국(%)
20대	23(19.5)	14(11.1)	84(80)	40대			24(22.8)
30대	95(80.5)	97(77.0)	19(18)	50대	58(47.7)	17(21.8)	65(61.9)
40대		10(8.0)		60대	43(36.4)	42(53.8)	14(13.3)
결측		5(3.9)	2(2)	70대	11(10.0)	14(18.0)	2(2)
인원	118	126	105	인원	118	78	105

<표 2> 한국, 홍콩, 미국의 문화내 세대간 학력분포

어머니세대학력	한국(%)	홍콩(%)	미국(%)	할머니세대학력	한국(%)	홍콩(%)	미국(%)
무학		2(1.6)		무학	25(21.2)	45(57.7)	
초등	3(2.5)	3(2.3)		초등	36(30.5)	18(23.1)	
중등	42(35.6)	13(10.3)		중등	25(21.2)	9(11.5)	3(2.8)
고등	20(16.9)	67(53.2)	12(11.4)	고등	22(18.6)	4(5.1)	17(16.0)
대졸이상	53(44.9)	40(31.7)	90(85.7)	대졸이상	9(7.6)	1(1.3)	84(79.2)
결측		1(0.8)	3(2.9)	결측		1(1.3)	1(0.9)
인원	118	126	105	인원	118	78	106

이나 아기용품 등 물질적 선물, 실 등 무병장수 기원의 선물, 책 등 장래 성공 기원 선물 받음 여부를 포함시켰다. 각 문항의 질문은 Yes/No 응답의 폐쇄형이나 多選의 선답형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첫뉘행사와 관련하여 '첫 생일 잔치를 했다'에 Yes/No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기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 ① 남편과 나(산모자신), ② 아기의 조부모, ③ 성직자, ④ 작명가, ⑤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전통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중심으로 한 설문지 작성 시 비교문화 연구에서 요구하는 탈중심화(Brislin, 1980)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삼국 학자간 공동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한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문항을 한국어로 정리한 후, 7인의 한국 아동학 전공자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홍콩과 미국 학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내용을 모르는 제 3자에게 재번역하게 함으로써, 영문 설문지가 국문 설문지와 대등하게 표현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즉, 척도의 번역상 동질성을 가능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997년 5월에서 9월에 걸쳐, 한국의 자료 수집은 자료 조사원이 첫 자녀의 연령이 2세 또는 2세 반까지의 어머니를 표집하여 그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자료수집 대상자로 삼았다. 자료 조사원은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된 설문지는 우송용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어머니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용 질문지는 자료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일일이 읽어주고 표기하는 면접방식을 취하였다. 홍콩의 자료 수집은 Hong Kong Baptist 대학의 Lau 교수가, 미국의 자료 수집은 미국 Utah State 대학의 Schvandtelt 교수가 각각 주관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하여 한국에 보내 주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Window형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은 Crosstabs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출생의례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출생의례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를 <표 3>에서 살펴보면, 출산 알림, 산후조리, 신생아 이름짓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로 알리는 경우, 한국과 홍콩이 60%정도인데 비해 미국은 93.8%나 되었다. 한국과 홍콩이 미국에 비해 전화로 출산을 알리는 경향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 홍콩의 할머니 세대에서 전화로 출산을 알리는 경우가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표 5>를 참고). 금줄을 치는 경우는 홍콩과 미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금줄이 한국사회의 독특한 풍속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순으로, 홍콩과 미국의 경우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남편들이 홍콩과 미국의 남편들에 비해 아내의 산후조리에 관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홍콩과 달리 시어머니로부터 산후조리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는 미국내 어머니들이 시어머니에 비해 친정어머니와 매우 높은 빈도의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와 더 밀접된 양육관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Myers & Williams-Pettersen, 1991)와 유관하다. 홍콩은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외 인물인 기타(주로 파출부)로부터 산후조리 도움을 받는 경우가 한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홍콩의 경우 동남아시아

〈표 3〉 출생의례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내용		구분	한국(빈도: %)	홍콩(빈도: %)	미국(빈도: %)	Pearson χ^2
출산알림	가까운 사람에게	예	140(59.3)	122(59.8)	197(93.8)	80.44***
		아니오	96(40.7)	82(40.2)	13(6.2)	
	전화함	예	57(24.2)	0(0)	0(0)	109.60***
		아니오	179(75.8)	204(100)	210(100)	
산후조리	산후조리	남편	22(9.4)	80(40.4)	102(50.0)	135.80***
		친정어머니	109(46.6)	54(27.3)	81(39.7)	
		시어머니	83(35.5)	35(17.7)	8(3.9)	
	도운사람	기타	20(8.5)	29(14.6)	13(6.4)	638.70***
		특별식(미역국 등)	211(90.9)	47(23.0)	2(1.0)	
		몸을 회복시키는음식	10(4.3)	100(49.0)	6(2.9)	
		평상시 음식	10(4.3)	56(27.5)	196(93.3)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	기타	1(4)	1(5)	6(2.9)	273.17***
		전혀 제한 안됨	53(22.5)	166(81.8)	192(91.4)	
		7일 미만	86(36.4)	13(6.4)	12(5.7)	
		8-21일	78(33.1)	21(10.3)	5(2.4)	
신생아	이름짓기	22일 이상	19(8.1)	3(1.5)	1(5)	253.84***
		남편과 나	67(28.4)	151(74.4)	196(93.3)	
		아기의 조부모	90(38.1)	19(9.4)	0(0)	
		성직자	8(3.4)	0(0)	0(0)	
		작명가	59(25.0)	25(12.3)	0(0)	
		기타	12(5.1)	8(3.9)	14(6.7)	
		아명 또는 애칭	예	35(15.2)	111(54.4)	
아니오	196(84.8)	93(45.6)	77(36.8)			

주1) *** p<.001

주2) 사례수(한국 236명, 홍콩 204명, 미국 210명)의 경우 변인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로부터 저임금의 고학력 여성 인력인 파출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시 한국과 미국에 비해 파출부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후조리 음식의 경우, 한국은 대부분 산후조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은 과반수 정도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신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산후에도 특별한 음식이 아닌 평상시 음식을 대부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외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홍콩, 미국의 경우 10-18%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한국은 칠일에

서 삼칠일까지 외인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70%나 되었다. 이는 삼칠일 정도 출산 후 외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생아 이름짓기와 관련하여 홍콩과 미국은 남편과 산모자신이 신생아의 이름을 대부분 짓지만 한국은 남편과 산모자신보다 아기의 조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명 또는 애칭의 경우 한국은 홍콩과 미국에 비해 아명이나 애칭의 사용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은 미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기행사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내용		구분	한국(빈도: %)	홍콩(빈도: %)	미국(빈도: %)	Pearson χ^2
첫돌잔치	ढ뵑잔치함	예	196(83.1)	96(47.1)	172(81.9)	86.20***
		아니오	40(16.9)	108(52.9)	38(18.1)	
	ढ뵑잡이함	예	108(45.8)	5(2.5)	10(4.8)	174.34***
		아니오	128(54.2)	199(97.5)	200(95.2)	
	ढ뵑음식 이웃돌림	예	145(61.4)	26(12.7)	38(18.1)	147.04***
		아니오	91(38.6)	178(87.3)	172(81.9)	
ढ뵑사진 찍음	예	167(70.8)	15(7.4)	148(70.5)	224.23***	
	아니오	69(29.2)	189(92.6)	62(29.5)		
첫돌선물	돈이나 금불이,	예	188(79.7)	72(35.3)	53(25.2)	151.52***
		저금통장	아니오	48(20.3)	132(64.7)	
	장난감	예	166(70.3)	131(64.2)	202(96.2)	67.91***
		아기용품	아니오	70(29.7)	73(35.8)	
	실 등 무병	예	85(36.0)	0(0)	1(0.5)	167.60***
		장수기원	아니오	151(64.0)	204(100)	
	책 등 장래	예	33(14.0)	15(7.4)	61(29.0)	36.96***
		성공기원	아니오	203(86.0)	189(92.6)	
첫ढ뵑의미	중요도	거의 중요하지 않음	30(12.7)	125(61.9)	111(53.1)	136.23***
		이후 생일보다 중요	136(57.6)	58(21.2)	80(38.3)	
		많이 중요	70(29.7)	19(9.4)	18(8.6)	

주1) *** p< .001

주2) 사례수(한국 236명, 홍콩 204명, 미국 210명)의 경우 변인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2. 아기행사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아기행사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첫ढ뵑잔치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홍콩에 비해 첫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ढ뵑잔치)을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ढ뵑잡이의 경우, 한국은 45.8%가 첫 생일을 맞이한 아기에 대해 ढ뵑잡이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미국과 홍콩에서는 거의 ढ뵑잡이 행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음식(ढ뵑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경우, 한국은 70%정도가 ढ뵑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데 반해 홍콩과 미국은 그러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ढ뵑 기념 사진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75%이상이 첫ढ뵑 사진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홍콩에서는 첫ढ뵑(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거의 찍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ढ뵑선물과 관련하여 한국은 홍콩과 미국에 비해 돈이나 금불이 등 금전적 선물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홍콩에 비해 장난감, 아기 옷 등 아기 용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등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물건을 첫ढ뵑선물로 받는 경우는 한국이 36%인데 비해, 홍콩과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등을 선물로 받는 경우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3국 모두 책을 선물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첫ढ뵑의미에 대해, 홍콩과 미국은 과반수 이상이 첫ढ뵑을 이후 생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대다수(87.3%)가 첫ढ뵑을 이후 생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생의례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의 세대간 차이

출생의례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세대간 차이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출산을 전화로 알리는 것의 할머니-어머니 세대간 차이는 한국과 홍콩에서 나타났지만, 미

국에서는 유의한 차이 없이 두 세대 모두 전화로 출산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홍콩의 경우, 어머니 세대에서는 전화로 출산을 알리는 것이 대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할머니 세대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전화보급률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경험하는 한국과 홍

<표 5> 출생의례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의 세대간 차이

내용	구분	한국		홍콩		미국	
		어머니세대 (빈도 %)	할머니세대 (빈도 %)	어머니세대 (빈도 %)	할머니세대 (빈도 %)	어머니세대 (빈도 %)	할머니세대 (빈도 %)
출산알림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함	108(91.5)	32(27.1)	99(78.6)	23(29.5)	100(95.2)	97(92.4)
	아니오	10(8.5)	86(72.9)	27(21.4)	55(70.5)	5(4.8)	8(7.6)
	Pearson χ^2	101.42***		48.28***		.74(ns)	
산후조리 도운사람	남편	11(9.5)	11(9.3)	58(46.8)	22(29.7)	59(56.7)	43(43.0)
	친정어머니	65(56.0)	44(37.3)	31(25.0)	23(31.1)	35(33.7)	46(46.0)
	시아머니	38(32.8)	45(41.9)	21(16.9)	14(18.9)	5(4.8)	3(3.0)
	기타	2(1.7)	18(15.3)	14(11.3)	15(20.3)	4(4.8)	8(8.0)
	Pearson χ^2	17.42***		6.62(ns)		5.12(ns)	
산후조리 음식	산후조리용 음식	102(88.7)	109(93.2)	32(25.4)	15(19.2)	2(1.9)	0(0)
	몸을 회복 시키는 음식	10(8.7)	0(0)	68(54.0)	32(41.0)	4(3.8)	2(1.9)
	평상시 음식	3(2.6)	7(6.0)	26(20.6)	30(38.5)	95(90.5)	101(96.2)
	기타	0(0)	1(0.9)	0(0)	1(1.3)	4(3.8)	2(1.9)
	Pearson χ^2	12.82**		9.63*		3.52(ns)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	전혀 제한 안됨	35(29.7)	18(15.3)	108(85.7)	58(75.3)	99(94.3)	93(88.6)
	7일 미만	35(43.0)	51(43.2)	6(4.8)	7(9.1)	4(3.8)	8(7.6)
	8-21일	40(33.9)	38(32.2)	11(8.7)	10(13.0)	2(1.9)	3(2.9)
	22일 이상	8(6.8)	11(9.3)	1(0.8)	2(2.6)	0(0)	1(1.0)
	Pearson χ^2	8.96**		3.92(ns)		2.72(ns)	
신생아 이름짓기	남편과 나	29(24.6)	38(32.2)	92(73.6)	59(75.6)	99(94.3)	97(92.4)
	아기의 조부모	33(28.0)	57(63.3)	5(4.0)	14(17.9)	0	0
	성직자	7(5.9)	1(12.5)	0(0)	0	0	0
	작명가	42(35.6)	17(28.8)	25(20.0)	0(0)	0	0
	기타	7(5.9)	5(4.2)	3(2.4)	5(6.4)	6(5.7)	8(7.6)
	Pearson χ^2	23.04***		27.57***		.31(ns)	
아명	예	15(13.0)	20(17.2)	77(61.1)	34(43.6)	71(67.6)	61(58.7)
	아니오	100(87.0)	96(82.8)	49(38.9)	44(56.4)	34(32.4)	43(41.3)
	Pearson χ^2	.79(ns)		5.96*		1.81(ns)	

주 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줄은 홍콩 및 미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간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주 2) * p<.05 ** p<.01 *** p<.001

주) 사례수(한국 어머니 118명, 할머니 118명, 홍콩 어머니 126명, 할머니 78명, 미국 어머니 105명, 할머니 105명)의 경우 변수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콩의 어머니 세대는 경제적 낙후로 인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할머니 세대와는 달리, 문명의 이기(利器)를 이용한 새로운 출생의례를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환경의 빠른 변화가 아동 양육의 변화를 유도(Lamb, 1987)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빠른 경제적 변화가 출산을 알리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홍콩과 미국은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어머니 세대는 시어머니 보다 친정어머니가, 할머니 세대는 친정어머니 보다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남편으로부터 산후조리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 및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남편의 산후조리 도움 폭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여자의 일로 간주하는 유교 문화적인 한국내 관습이 어머니 세대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대간 유의한 차이없이, 60년대 말 첫 출산을 경험한 할머니 세대에서도 산후조리시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내 아버지의 부모역할 참여 분위기가 196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에 확산(Pleck, 1984)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후조리 음식과 관련하여 한국은 두 세대 모두 미역국 등 산후조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인 산식(産食)을 대부분 먹지만,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에 비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신 음식을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경우,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에 비해 산후조리용 특별한 음식이나 몸을 회복시키는 보신 음식을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에 비해 평상시 음식을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두 세대간 차이없이 대부분 평상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과 미국에서는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없이, 출산 후 외인 출입 제한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두 세대 모두 외인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에

에 비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이름짓기 중 작명의 경우, 미국은 두 세대 모두 아기의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콩은 두 세대 모두 아기의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할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보다 아기의 조부모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작명가에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미국과 홍콩은 두 세대 모두, 아기의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화된 대중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어머니 세대에서는 작명가, 아기의 부모, 그리고 아기의 조부모 순으로, 할머니 세대에서는 아기의 조부모, 아기의 부모, 작명가 순으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권이 강한 확대가족으로, 아기의 부모보다 집안의 연장자인 아기의 조부모가 아기의 사주와 집안 항렬을 고려해, 아기의 사회적 성공, 장수, 복록을 기원하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의 경우, 아기의 부모나 조부모 모두가 근대식 서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필요한 충분한 한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에 의해,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와 달리 아기의 조부모보다 작명가를 통해, 아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명이나 애칭의 경우, 한국에서는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없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없이 과반수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콩의 경우, 할머니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에서 아명이나 애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보다 영국의 서구식 교육과 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서구식 애칭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아기행사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의 세대간 차이

아기행사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의 어머니 세대

와 할머니 세대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둘째(첫 생일)잔치의 경우 한국, 홍콩, 미국 문화 모두 할머니보다 어머니 세대에서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어머니 세대의 경제적 풍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홍콩의 경우, 어머니 세대의 둘째잔치는 할머니 세대보다 3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둘째 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경우, 한국은 두 세대 모두 65% 이상 나타났으며 홍콩은 두 세대 모두 둘째 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 그리고 미

국은 두 세대 모두 20%정도만이 둘째 음식을 이웃에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념 사진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어머니 세대는 88% 정도가 기념 사진을 찍는데 반해, 할머니 세대는 60%미만만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두 세대 모두 기념 사진을 거의 찍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선물과 관련하여, 돈이나 금붙이 등 금전적 선물을 받는 경우 문화별로는 한국이 가장 많았으나(<표 4> 참조), 세대간으로 살펴보면 한국, 홍콩, 미국 문화 모두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보다 유

<표 6> 아기행사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의 세대간 차이

내용	구분	한국		홍콩		미국	
		어머니세대 (빈도 %)	할머니세대 (빈도 %)	어머니세대 (빈도 %)	할머니세대 (빈도 %)	어머니세대 (빈도 %)	할머니세대 (빈도 %)
둘째잔치	예	108(91.5)	88(74.6)	80(63.5)	16(20.5)	96(91.4)	76(72.4)
	아니오	10(8.5)	30(25.4)	46(36.5)	62(79.5)	9(8.6)	29(27.6)
	Pearson χ^2	12.04***		35.72***		12.85***	
첫째잔치 이웃돌림	예	83(70.3)	62(52.5)	15(11.9)	11(14.1)	22(21.0)	16(15.2)
	아니오	35(29.7)	56(47.5)	111(88.1)	67(85.9)	83(79.0)	89(84.8)
	Pearson χ^2	7.88**		21(ns)		1.16(ns)	
사진찍음	예	102(86.4)	65(55.1)	7(5.6)	8(10.3)	95(90.5)	53(50.5)
	아니오	16(13.6)	53(44.9)	119(94.4)	70(89.7)	10(9.5)	52(49.5)
	Pearson χ^2	28.04***		1.56(ns)		40.37***	
돈이나 금붙이 저금통장	예	115(97.5)	73(61.9)	53(42.1)	19(24.4)	37(35.2)	16(15.2)
	아니오	3(2.5)	45(38.1)	73(57.9)	59(75.6)	68(64.8)	89(84.8)
	Pearson χ^2	46.13***		6.61*		11.13***	
첫째선물 장난감 아기용품	예	111(94.1)	55(46.6)	107(84.9)	24(30.8)	105(100.0)	97(92.4)
	아니오	7(5.9)	63(53.4)	19(15.1)	54(69.2)	0(0)	8(7.6)
	Pearson χ^2	63.69***		61.48***		8.32**	
책 등 장래 성공기원	예	22(18.6)	11(9.3)	13(10.3)	2(2.6)	45(42.9)	16(15.2)
	아니오	96(81.4)	107(90.7)	113(89.7)	76(97.4)	60(57.1)	89(84.8)
	Pearson χ^2	4.26(ns)		4.25(ns)		19.43***	
첫째의미 중요도	거의 중요하지 않음	15(12.7)	15(12.7)	67(53.2)	58(76.3)	50(47.6)	61(58.7)
	이후 생일보다 중요	75(63.6)	61(51.7)	51(40.5)	7(9.2)	42(40.0)	38(36.5)
	이후 생일보다 많이 중요	28(23.7)	42(35.6)	8(6.3)	11(14.5)	13(12.4)	5(4.8)
	Pearson χ^2	4.24(ns)		23.57***		4.84(ns)	

주 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둘째잔치, 실 등의 무병 장수 기원 선물 등은 홍콩, 미국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간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주 2) * p<.05 ** p<.01 *** p<.001

주) 사례수(한국 어머니 118명, 할머니 118명, 홍콩 어머니 126명, 할머니 78명, 미국 어머니 105명, 할머니 105명)의 경우 변수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의하게 많았다. 장난감, 아기 옷 등 아기 용품을 받는 경우, 역시 한국, 홍콩, 미국 문화 모두 할머니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가 유의하게 많았다. 책 등 장래 성공을 기원하는 물건을 첫똥 선물로 받는 경우, 한국과 홍콩에서는 두 세대간 모두 상당히 적었다. 미국의 경우,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많이 책 등 장래 성공 기원 물건을 첫똥 선물로 받았지만 보편적 풍속이라 할 수는 없다.

첫똥의미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 모두 세대간 차이없이 거의 대부분, 첫똥을 이후의 생일보다 중요하게 또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은 두 세대간 차이없이, 첫 생일을 이후 생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후 생일과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콩은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는 할머니 세대보다 첫 생일을 이후 생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의 과반수 이상은, 대부분의 할머니 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비교문화의 준거자료로 사용하여 한국, 홍콩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아동양육 풍속을 문화간, 세대간으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출생의례 중 출산소식을 알리는 방법은 한국, 홍콩, 미국의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전화로 출산을 알리는 것이 미국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 모두에서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한국과 홍콩에서는 어머니 세대에 새롭게 발달한 현상이다. 출산을 알리기 위해 금줄을 치는 것은 홍콩과 미국 없는 한국적 풍속이지만, 한국의 어머니 세대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출생의례로 자리매기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산후조리시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 산후조리 음식,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은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의 경우, 홍콩과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시 남편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한국은 할머니 세대 뿐 아니라 어머니 세대조차 산후조리시 남편의 도움보다 친정 또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부부 공동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의식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산후조리시 한국과 홍콩에서는 산후에 먹는 음식(産食)이나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 등 산후조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나,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용 음식이 특별히 발달하지 않은 채, 평상식을 이용한다. 출산 후 외인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홍콩과 미국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관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머니 세대의 경우, 의학의 발달로 외인출입 제한이 할머니 세대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지만, 전통적 제한 기간인 삼칠일(유안진, 1990)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신생아 이름짓기와 관련하여 작명과, 아명 또는 애칭 사용은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홍콩과 미국은 두 세대 모두 대부분 아기의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지만, 한국의 할머니 세대에서는 아기의 조부모가,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기의 부모보다 작명가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미국에서는 작명가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한국과 홍콩 특히 한국에서는 작명가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아명이나 애칭 사용의 경우, 한국에서는 두 세대 모두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홍콩의 어머니 세대와 미국의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아명이나 애칭을 사용한다.

넷째, 아기행사와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

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첫똥을 축하하는 잔치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두 세대간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할머니 세대보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어머니 세대에서 더욱 보편화된 양상을 띄고 있다. 첫 생일날 똥잡이를 하거나 똥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것은 홍콩과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적 관습이다. 그리고 첫 생일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홍콩에서 발달되지 않은 한국과 미국의 보편적인 문화 특성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할머니 세대에서도 과반수 정도가 첫똥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어머니 세대는 거의 모두 첫똥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첫똥선물과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첫똥선물로 돈이나 금붙이 저금통장 등 금전적 선물을 받는 것은 홍콩,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이다. 장난감, 아기 옷 등 아기 용품을 첫똥선물로 받는 것은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공통적이지만 한국, 홍콩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어머니 세대에 와서 발달한 선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실 등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선물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선물이며, 책 등 장래성공을 기원하는 선물은 한국, 홍콩,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첫똥선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첫똥의의와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홍콩과 미국에서는 두 세대 모두, 과반수 정도가 첫똥을 이후 생일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두 세대 모두, 거의 대부분 첫똥을 이후 생일보다 중요하게 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국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는 홍콩 및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독특한 양육풍속이다. 출생의례와 관련하여 금줄로 출산소식을 알려거나, 산후조리시 남편 보다 친정 또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산후조리음식으로 미역국 등의 산식(産食)을 먹는 것, 신생

아의 이름을 아기의 부모 외에 아기의 조부모 또는 작명가가 짓는 것, 아명이나 애칭 사용이 거의 없는 것, 그리고 아기행사 중 첫똥잔치에서 똥잡이를 하거나, 똥음식을 이웃에 돌리거나, 첫똥선물로 돈이나 금붙이, 저금통장 등 금전적 선물이나 실 등 무병 장수기원의 선물을 이용하거나, 첫똥을 이후 생일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등이 홍콩 및 미국에서 발달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반영한다고 수 있다. 한편 금줄의 경우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세대에서는 더 이상 전승되지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할머니-어머니 세대간 전이는 홍콩과 미국에 비해, 특히 미국에 비해 내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전화사용의 출산소식 알림,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 신생아의 이름짓기 등 산업화, 도시화 또는 서구화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 세대가 영아 양육을 경험했던 1960년대에서 어머니 세대가 영아 양육을 하는 1990년대 동안 홍콩이나 미국에 비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서구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셋째, 홍콩 및 미국과 구분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서구화로 인해 실천 내용상 어머니-할머니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196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전승되고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 발달한 산후조리,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 첫똥잔치 및 첫똥의 중요성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양육행동에 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문화적 관습을 토대로 발전(Edward et al., 1996; Greenfield & Suzuki, 1998)됨을 고려해 볼 때,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전통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할머니 세대를 거쳐 어머니 세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비교문화적 연구가 드문, 그리고 우리

전통의 아동양육 풍속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학문적 현실에서,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양육 풍속의 문화적 고유성 또는 문화내 세대간 안정적 전승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비교 준거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홍콩이나 미국 문화의 대표할 만한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한편 전통적인 아동양육 풍속을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아동양육 풍속의 비교문화적 특성 등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참고문헌

- 구미향, 이양희(2002). 한, 미, 불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 *아동학회지*, 23(2), 89-103.
- 김영주(2001). PC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 출산 및 영아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1-14.
- 김용덕(1996). *한국의 풍속사*. 서울: 밀알.
- 김용숙(1993). *한국여속사*. 서울: 민음사.
- 남수중(1996). *홍콩편람 96-16*.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류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 중문.
- 민하영, 유안진(2003).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14(3), 45-56.
- 신양재, 김영주(1993).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I): 1920년대부터 1970년대의 동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5.
-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순형(1997). 정약용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학 연구*, 35, 41-65.
- 이영환(2002).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3(1), 139-151.
- 최기영, 이정미(2002). 조선시대 회화에 묘사된 아동의 양육과 생활. *아동학회지*, 23(1), 105-117.
- Brislin, R. (1980).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s. In H. Triandis & J. Berry(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 Boston: Allyn & Bacon.
- Edward, C. P., Gandini, L., & Giovaninni, D. (1996). The contrasting developmental timetables of parents and preschool teachers in two cultural communities. In S. Harkness & C. M. Super(Eds.),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Their origins, expressions, and consequences*, 270-288. NY: Guilfords Press.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eenfield, P. M. (1994).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as developmental script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P. M. Greenfield & R. P.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1-40. Hillsdale, NJ: Erlbaum.
- Greenfield, P. M., & Suzuki, L. A. (1998).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arenting, education, pediatrics, and mental health. In W. Damon, I. E. Siegel, & A. Renning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 NY: John Wiley & Sons, Inc.
- Hoffman, L. W. (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In R. A. LeVine, P. M. Miller, & M. M. West(Eds.),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0, 99-122, San Francidco: Jossey-Bass.

- Lamb, M. E. (1987).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yers, B. J. & Willams-Petersen, M. G. (1991). Beliefs and memories about child-rearing across generation: mothers and grandmothers of one-year old infa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7, 111-128.
- Pleck, J. H. (1984). *Working wives and family well-being*. Beverly Hills, CA: Sage.
- Super, C. M. & Harkness, S. (1997). The cultural structuring of child development In J. W. Berry, P. R. Dasen, & T. S. Saraswathi, (2nd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 Basic process and human development*, 1-40. Boston: Allyn & Bacon.

(2003년 12월 29일 접수, 2004년 2월 12일 채택)